



더불어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공동체

국어 2학년 1학기	2. 사랑을 전하는 시 (1) 개성적인 표현 - 반어,역설,풍자	‘나’의 삶을 가꾸고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나는 협력하며 배우는 2학년 반 번 ()입니다.
성취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국05-09] 자신의 가치 있는 경험을 개성적인 발상과 표현으로 형상화한다. • [9국05-04] 작품에서 보는 이나 말하는 이의 관점에 주목하여 작품을 수용한다. 	
학습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어, 역설, 풍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경험을 개성 있게 표현할 수 있다. 	
교과서 관련쪽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어2-1. 94~127쪽 	



시의 요소에 대해 1학년 때 배운 내용을 떠올려 보자.

1. 운율

(1) 운율의 정의: 시에서 느껴지는 ()

(2) 운율의 종류

- ① (): 일정한 규칙 없이 자유시나 산문시의 문장 속에서 은근히 느껴지는 운율
- ② (): 일정한 규칙이 반복되며 시의 표면에 드러나는 운율

(3) 운율을 만드는 방법

- ① 같은 음보 ()
- ② 같은 문장 구조 ()
- ③ 일정한 글자 수 ()
- ④ 같거나 유사한 소리, 단어, 구절의 ()

2. 심상(이미지)

(1) 심상의 정의: 시를 읽을 때 마음속에 떠오르는 빛깔, (), 냄새, (), 촉감 등의 ()인 느낌

(2) 심상의 종류

심상	뜻
() 심상	눈을 통해 느껴지는 심상. 색채, 움직임을 제시하는 이미지 (예) 푸른 하늘을 보며 / 시든 꽃다발이 흩어져있다.
() 심상	귀를 통해 느껴지는 심상. 소리, 음성 등을 제시하는 이미지 (예) 머리맡에 찬물을 싹아 퍼붓고는 / 참깨처럼 쇠아쇠아 쏟아지는
() 심상	코를 통해 느껴지는 심상. 냄새, 향기 등을 제시하는 이미지 (예) 향그러운 고향 냄새 맡으며 / 우거진 나무의 후덥지근한 냄새
() 심상	혀로 맛을 보는 것 같이 느껴지는 심상 (예) 달콤한 사과를 베어 물고 / 소금보다 짜다는 인생을 안주삼아
() 심상	피부의 촉감을 통해 느껴지는 심상. ‘촉다, 덥다, 시원하다’ 등의 감각 (예) 싸늘한 밤바람에 / 부드러운 털을 만지며
() 심상	두 가지 이상의 감각이 함께 느껴지는 심상 (예) 부드러운 노을 / 고요한 무지개 /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

(3) 심상의 효과: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을 감각적이고 ()으로 그려내어 ()을 느끼게 해준다.

3. 비유

(1) 비유의 정의

-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을 다른 비슷한 현상이나 사물에 () 표현하는 방법
- 원래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을 ()이라 하고, 원관념을 잘 표현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떠오르는 사물을 ()이라고 한다.

(2) 가장 많이 쓰이는 비유법

비유법	뜻	예시
	~같이, ~처럼, ~듯이 ~인양 등을 사용하여 직접 빗대는 표현방법	- 보름달 같은 내 얼굴 - 엄마 얼굴이 보름달처럼 둥글다.
	‘A는 B이다’의 형식으로 빗대는 표현방법	- 내 마음은 호수요 - 우리 엄마 얼굴은 보름달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방법	- 보름달이 나를 보며 활짝 웃는다.

(3) 비유의 효과: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을 ()으로 그려내어 ()을 느끼게 해준다.

4. 상징

(1) 상징의 정의: 추상적인 것을 ()인 사물로 나타내는 것

<예시>

“솔아, 너는 어찌 눈서리를 모르느냐?”

⇒ '고난, 시련'과 같은 추상적인 것을 '눈서리'라는 구체적인 사물로 나타냄

(2) 우리가 많이 접하는 상징의 예

- * 네잎클로버 → ()
- * 비둘기 → ()
- * 십자가 → ()
- * 왕관 → ()

(3) 상징의 효과: 시의 의미를 풍부하고 깊이 있게 드러낸다.



더불어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공동체

국어 2학년 1학기	2. 사랑을 전하는 시 (1) 개성적인 표현 - 반어,역설,풍자	‘나’의 삶을 가꾸고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나는 협력하며 배우는 2학년 반 번 ()입니다.
성취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국05-09] 자신의 가치 있는 경험을 개성적인 발상과 표현으로 형상화한다. • [9국05-04] 작품에서 보는 이나 말하는 이의 관점에 주목하여 작품을 수용한다. 	
학습 목표	• 반어, 역설, 풍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경험을 개성 있게 표현할 수 있다.	
교과서 관련쪽수	• 국어2-1. 94~127쪽	



다음 글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창의적이고 개성적으로 표현하는 방법들을 알아보자.

작가는 문학 작품에서 다양한 표현 방식을 통해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전달한다.

작가는 자신의 속마음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을 다른 대상에 빗대어 표현하기도 하고, 반복이나 과장을 통해 강조하여 표현하기도 한다. 이러한 다양한 표현을 활용하면 표현에 담긴 의미를 강조할 수 있고 상대방에게 깊은 인상도 줄 수 있으며 작가의 개성을 드러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반어**’는 말하는 이가 자신의 속마음과 반대로 표현하는 것이며, ‘**역설**’은 겉으로는 뜻이 모순되고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진리(진실)를 담고 있는 표현이다. 또한, ‘**풍자**’란 인물이나 현실의 부정적인 모습을 과장하거나 왜곡하고, 비꼬아서 표현하여 웃음을 유발함으로써 대상을 비판하는 표현 방법이다.



다음의 시를 통해 반어, 역설, 풍자에 대해 알아보자.

<p style="text-align: center;">진달래꽃</p> <p style="text-align: right;">김소월</p> <p>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u>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u></p> <p>영변에 약산 진달래꽃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p> <p>가시는 걸음 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즈려밟고 가시옵소서.</p> <p>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u>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u></p>	<p>(1) 말하는 이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p>
	<p>(2)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라는 표현에 담긴 말하는 이의 속마음은 무엇인가?</p>
	<p>(3) 1연과 4연에서 사용된 표현방법은?</p>
	<p>(4) 말하는 이의 속마음이 직접적으로 드러나도록 다음 표현을 바꾸어 보자.</p>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margin-top: 10px;">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right: 10px;">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div> <div style="font-size: 2em; margin-right: 10px;">⇒</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200px; height: 50px; flex-grow: 1;"></div> </div>
	<p>(5) 표현을 바꾸었을 때 시의 느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해 보자.</p> <p>* 바꾸기 전:</p> <p>* 바꾼 후:</p>

별

정진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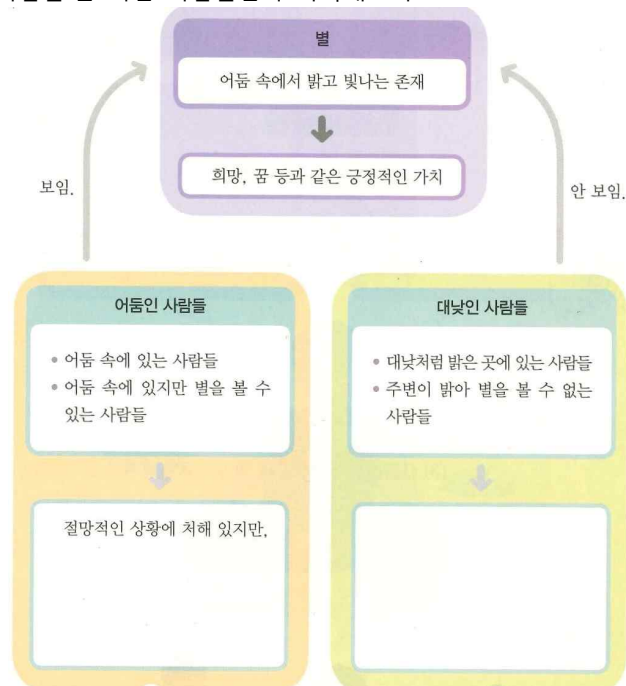
별들의 바탕은 어둠이 마땅하다
 대낮에는 보이지 않는다
 지금 대낮인 사람들은
 별들이 보이지 않는다
 지금 어둠인 사람들에게만
 별들이 보인다
 지금 어둠인 사람들만
 별들을 낳을 수 있다

 지금 대낮인 사람들은 어둡다

(1) 이 시의 흐름에 따라 내용을 정리해보자

_____은/는 대낮에는 않는다.
_____은/는 별들이 보이지 않는다.
_____에게만 별들이 보인다.
_____만 별들을 낳을 수 있다.
지금 대낮인 사람들은_____.

(2) 이 시에 나오는 '별'의 의미를 바탕으로 '어둠인 사람들'과 '대낮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파악해보자.



(3) [보기]에서 설명하는 표현 방법을 활용한 구절을 시에서 찾아 밑줄을 그어 보자.

[보기]

역설이란 겉으로는 뜻이 모순되고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진리(진실)를 담고 있는 표현을 말한다. 예를 들어, “아아, 님은 갔지마는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라는 표현에서 ‘님이 갔다’라는 말과 ‘님을 보내지 않았다’라는 말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하지만 그 속에는 비록 ‘님’이 떠났더라도 ‘님’을 기억하며 그리워하겠다는 말하는 이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다.

(4) (3)에서 밑줄 그은 구절에 담긴 참 뜻을 써 보자.

(5) (2)~(4)을 바탕으로 역설법을 활용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말해 보자.

두꺼비 파리를 물고 두엄 위에 치다라 앉아
건너산 바라보니 백송골(白松鵲)이 떠 있거늘
가슴이 꿈쩍하여 펄쩍 뛰어 내달리다가 두엄 아래
자빠졌구나.

모쳐다 날낸 널시망정 어혈들 뻥 했구나.

-작자 미상

두꺼비 파리를 물고 두엄더미 위에 뛰어올라 앉아
건너편 산을 바라보니 송골매가 떠 있어서 가슴이
섬뜩하여 펄쩍 뛰어 내리다가 두엄더미 아래
자빠졌구나

마침 내가 날래기 망정이지 멍이 들뻥 했구나.

*치다라: 뛰어 올라 *백송골: 흰 송골매 *모쳐라: 마침 *날낸 널시망정: 날랜 나였기에망정이지 *어혈: 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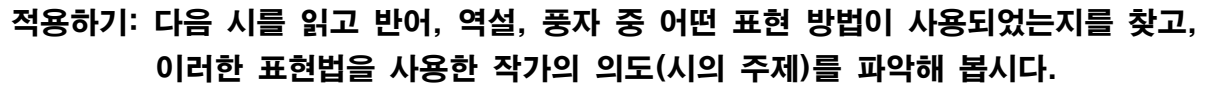
(1) 다음 설명을 바탕으로 '두꺼비', '파리', '백송골'이 의미하는 대상을 파악해 보자.

17~18세기에 민중 의식이 싹트기 시작함에 따라 일반 민중들은 자신들의 현실 의식을 문학 작품을 통해 표현하였다. 이 사실시조 역시 백성을 괴롭히는 부패한 탐관오리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한편 중앙 관리나 외세와 같이 자신보다 더 강한 자 앞에서는 꿈쩍 못하고 비굴하게 달아나는 탐관오리의 모습을 극적으로 우스꽝스럽게 표현하고 있다.



(2) (1)에 나타난 동물들의 모습을 통해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말해 보자.

(3) 위 시조에서 사용된 표현방법은 무엇인지 말해보자.



정호승

표현 방법:
작가의 의도:

김소월

표현 방법:
작가의 의도:

김용택

표현 방법:
작가의 의도: